

한성여행특토리얼

## 란도마구를 찾아라

때는 1400년, 개국 초기의 혼란은 사라지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던 시기. 조선의 세 번째 왕으로 즉위한 태종은 신분과 출신을 가리지 않고 각 지방의 관찰사가 인재를 추천할 수 있는 제도인 도천법을 포고한다. 이에 전국 각지의 재능 있는 청년들이 조선의 새로운 수도 한성부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아 기회의 땅 한성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떨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지령. 관찰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성부로 향할 수 있다. 란도마구(랜드마크)에서 기다리고 있는 관찰사의 지령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한성부로 입성하라.

한성여행특토리얼

## 왕을 찾아서

조선팔도의 청년들이 모인 모습을 본 태종은 이들 중 가장 뛰어난 자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 때 문득 아버지 태조 대왕과의 추억이 떠오르는데,

어린 시절 아버지 태조 대왕은 아들과 숨바꼭질을 자주 하였다. 변방을 지키는 장수였던 태조 대왕의 피를 물려받은 아들들은 격구와 전쟁놀이를 좋아하였으나 훗날 태종으로 즉위한 이방원만은 학문을 소중히 여겼고 사물의 이치를 헤아리기를 좋아하였다. 숨바꼭질이 시작되면 아버지는 숨었고 아들들은 찾기 시작했는데 다른 형제들은 들로 산으로 뛰기에 바빴으나 이방원은 아버지의 평소 행동을 골똘히 생각하곤 금세 아버지를 찾아냈다.

옳거니, 숨바꼭질이로다!

태종은 자신의 호위무사 다섯에게 지령지를 건네주고 각각 근정전, 경희루, 향원정, 강녕전, 교태전에서 지령을 내리게 한 뒤 지령을 해결한 자에게 왕이 숨은 곳을 추리할 수 있는 조각보를 주게 명한다.

경복궁에 모인 조선팔도의 뛰어난 청년들이여! 수수께끼를 풀고 왕을 찾아 천하일미의 재주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한성여행특토리얼

# 이방인이로다

개국 조선의 신진문물을 구경하기 위해 세계 각지의 이방인들이 한성부를 탐방중이다. 한성부를 둘러본 이방인의 표정이 몹시도 궁금한 태종은 이방인의 표정을 그려오는 자에게 포상을 줄 것을 명한다.

☞ 외국인과 함께 모동원 3인 이상이 함께 단체 사진 찍기.

☞ 포상 : 단체 사진 100길 / 점프샷 200길

한성여행특토리얼

## 문 제 요 푸 시 오

때는 1420년. 새로운 나라의 가치와 철학을 확립하고 학문을 진흥시키자는 신하들의 건의를 받은 세종은 고려 이래로 유명무실하였던 학문연구기관을 하나의 기구로 만들고 그 규모를 대폭 확장하여 집현전이라 명한다.

한편, 백성들이 쓰는 말과 귀족들이 쓰는 말이 달라 통치 기틀을 확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세종은 백성들을 위한 언문을 창안하기로 결심하고 학문에 뛰어난 청년들을 집현전에 대거 등용시키라 명한다.

집현전 학자가 되면 조선 왕실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아 학문을 연구하고 후세에 이름을 떨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집현전 학자들이 낸 문제의 답을 찾아 조선의 학자로 등용되어라!

- ☞ 제한 시간 80분 동안 전시실을 돌아다니며 문제를 푼다.
- ☞ 문제지에 답을 적어 제출하면 500길, 15개 이상의 문제를 맞히면 1000길을 지급받는다.

## 정유도란 丁酉道亂

때는 조선 중기. 강력한 왕권과 학문을 통한 통치로 거듭 발전하던 조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도의 결함이 드러나며 왕권은 약화되고 귀족 가문들의 빈번한 충돌과 갈등은 사화와 당쟁으로 이어진다.

연산군의 폭정이 날로 심해지던 1506년, 새로운 왕을 옹립하려는 귀족 가문의 세력들은 혹시 모를 사화를 대비하여 가보를 숨기고 새로운 왕을 추대하기 위해 세력 다툼을 시작하게 되는데...

가보를 지키고 조선의 보물을 찾아 세력을 확장하여 새로운 왕을 옹립하라.

- ☞ 탐색전(20분) : 가보(왕보)를 숨기고 지리를 익혀 각자 거점을 정하고 작전을 회의한다.
- ☞ 전반전(30분) : 징이 한 번 울리면 가보와 함께 숨겨진 재물(볼풀공)을 찾는다. 찾은 재물을 모처에 숨길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가문이 쥐고 있는 재물을 빼앗을 수는 없다.
- ☞ 후반전(50분) : 징이 두 번 울리면 다른 가문의 재물을 빼앗을 수 있다. 마감 시간 십 분 전 징이 울리면 태극기공원 입구 앞 바구니에 재물(볼풀공)을 모으기 시작한다. 제한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면 재물은 모두 사라진다.
- ☞ 가보를 빼앗긴 경우 최종 점수에서 500길을 제한다.
- ☞ 다른 가문의 가보를 빼앗은 경우 300길을 추가 포상한다. 재물(볼풀공) 중 열 개에 조선의 보물 이름이 적혀있다. 모아온 재물(볼풀공)에 조선의 보물 이름이 적혀 있으면 1개당 100길을 추가 포상한다.

한성여행특토리얼

## 명 불 한 성

때는 조선후기, 임진년의 왜란을 겪은 후 가난과 혼란 속에서 자라던 길쇠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양반의 음식에 손을 댄다. 곤장을 맞고 풀려난 길쇠는 신분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며 한성의 어느 산비탈에서 잠이 드는데.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길쇠, 영문을 알 수 없는 지하 동굴에서 사람들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 하며 지하로 내려간다. 투명한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본 길쇠는 그 곳에 잠시 앉았는데.

시간을 건너뛰어 현대 서울에 오게 된 길쇠는 지하 동굴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역마차를 타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게 된다. 길쇠는 현대 서울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과거로의 여행을 떠날 것인가.

☞ 가장 서울스럽지 않은 곳을 찾아 과거와 미래로 향하는 시간여행을 시작하라.